

영화사의 흐름 잇는 영화제

문화탐방 8mm 영화로 시작된 '그림자놀이'를 찾아

지난 80년 5월 영화감독, 영화 제작, 영화제의 3대 기본활동 아래 학생운동과 전체사회변혁운동에 복무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 우리 삶의 모습을 올바르게 담아내고자 만들어진 영화연구회 '그림자놀이'는 8mm 영화와 비디오 영화를 주로 제작하여 상영하고 있다.

'그림자놀이'는 세계영화사, 영화의 이해, 대학문화의 이해, 영화구조와 미학 등을 통한 영화 학습을 첫째 조건으로, 그에 따라 학습의 전진 영화의 제작 및 영화제를 가지면서 지난 80년대에는 '가슴에 듣는 칼로 손톱을 자르고'를 제작, 대학의 문화상영을 하였으며, 작년 가을에는 당시 문예가 되었던 여성단체를 다룬 영화들을 위주로 한 '여자는 왜...'를 기획하여 '태래사의 초상', '단지 그대여 여자는 이 유언으로' 등 8편의 영화를 상영하였다.

한편 오는 2일부터 5일까지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있을 제17회 정기영화제는 최근 총리회주의 하리우드 영화를 치는 이 시점에서 1959년 이전, 세계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기법이나 내용을 담담시킨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영화사의 흐름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20년대 독일과 소련의 무성영화와 2차대전 직후의 이태리 신사실주의, 프랑스의 새로운 물결의 영화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영화의 초보적 학습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하며 다음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화되는 파업 속에서 불세비키의 혁명성을 강조한다. 지배계급의 광복한 탄압에 소의 도살장면을 고지시계, 시체를 노려보는 노동자의 눈동자와 뒤이어 나오는 '영원히 기억하라, 프로레타리아'의 잔인한 자살을 부각시킨다.

2. 자전적 도둑(비토리오 데 시카)
네오리얼리즘을 가장 훌륭하게 표현한 이 작품은 한 사람을 자전적 도둑으로 만든 사회적 환경



◇정경대 101강의실에서 열린 영화제 모습

이상은 일할 수 없는 상황속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일에 대해 표

현하고 있다. 안토니오가 도둑을 잡았을 때, 짧은 도둑이 간질병환자로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이기에 대해 표

〈문 학 부〉

85년, 우리 삶의 모습 담고자 창단 의미있는 기획속에 인정받는 영화 동아리

1. 과업 (에이텔스틴 감독)
실제없이 연기를 보여주는 군장군복, 노동자들은 선전·선동을 통해 파업을 결의하고 자본가들은 프락치에게 감시를 지시한다. 그러던 어느날 정밀측정기 본사로 도둑으로 몰린 노동자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파업에 몰입, 정기

앞은 삶에 미음 같은 시

서평

혼자 가는 먼 집, 을 읽고

허수경은 사랑에 실패한 여성이다. 그녀에게는 사랑에 실패한 '시인'이라는 집안을 떠올리게 않는다. 그러나 시집 도자에서 만나는 것은 '시인'의 것이라기보다 '처녀'의 것이기 때문이다. '처녀'의 것이기 때문이다. '처녀'의 것이기 때문이다. '처녀'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처라는 이름에 다른 아니고 때로 여성적으로 노태가 되기도 한다. 사랑에 실패한 여성이 부르는 노래가 왜 그리 간절과한가.

치열하지만 왜 그리 아늑한가. 그러한 슬픔속에는 아늑한 집이 있단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집.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니 총내는 기억하지 않는 안타까움을 짊어지고 오며다 더 멀리 이기지만 할 뿐. 후회하며 다시 누군가도 멀어져야 할 집이라고 시는 보이지 않게 말한다. 반대로 더욱 가까워지는 집이고 이리저리 삶. 당연히 그 시는 고통스럽거나 절망적이다.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은 몸·마음의 노래로 나타난다.

마음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은 소멸시킨다. 이는 역으로 사랑의 현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랑은 나를 버리고 그에게로 간다(사랑은 나를 버리고 세월로 간다(사랑의 사랑)'고 자기에게서 떠나는 사랑이지만 '나'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 기억만 있다(주체적)라고 답답하게 말한다. 따라서 '마음의 빛깔을'은 그 소리, 사랑(한 문 한 문)의, 즉 이지도 아늑하지 않은 상처의 마음이다. 오히려 더더욱

공연준비에 한창인 중앙 노래패

— '노래 여울' 전 회장 허경태군을 만나

늦은밤에도 편곡을 하느라 동아리방을 떠날 줄 모르는 '노래 여울' 전 회장 허경태(물리·90)군을 만났다.

작년 패원들의 부재로 계획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내일일을 오늘 결정하는 힘든 상황에서 같이 남아준 외환후배들과 다시 돌아온 동기들이 큰 힘이 되었다는 그는 1학년 때 물리학과 노래패 활동을 통해 음악에 대한 애착을 기렸고, 그후 고민을 통해 노래운동장을 열어 확실하고 싶어서 '노래여울'을 창단하며 가입동기를 밝혔다.

'처음에 기타로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 재가 지금은 기타, 드럼, 키보드는 물론 작곡과 편곡, 공연연출에까지 손을 댄다는 것이 참 우습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작년 주위에서 '노래여울'이 언제 해체될 것인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욱 허리는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 같다. '소수정예부대(?)'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무주목의 지적하면서 지체없이 무대물에게 자신들의 의견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장단을 내려 주기 보다는 그들의 고민을 심화시켜 주는 한계가 되고 있다는 그는, 선택가 음악은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도록 후배들의 비판이 필요 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연이 막연하게 기획되고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가장 매력있다는 허경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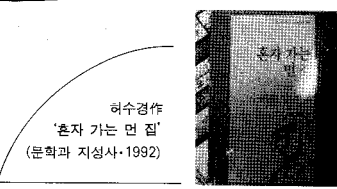
기량의 담보와 경제교육, 그리고 생활속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일상활동체계의 산물 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윤원 단과 학교의 공연에 불라는 화 우들의 모습과 광범한 정치적 허

'노래여울'은 지난 84년 대중 음악문화의 건강한 대안이라는 문예의식을 가지고 '아리랑'이란 이름으로 창단되어 87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한 후 현재 회장과 문예교사, 외환인 이상의 학습공간으로 이루어진 일상

제개와 기획부와 기타 부로 구성된 기획단을 둔 공연체제를 두고, 정기공연과 산발성 O. T 공연 및 문화산봉대

를 가지는데 오는 6월 3일에 는 노원구에서 오후 6시와 8시 두차례 별 정기공연을 가지며, 처음으로 월요일에는 학우들의 인식조사표와 의회 패의 존재여부, 공연과 공연내용 전반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일평기자〉



허수경작 '혼자 가는 먼 집' (문학과 지성사·1992)

기도 하다. 슬프게 생각하고 망가지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다. 어찌라 삶이, 사랑이 실패라도 겨우

의 목소리로 감겨져 있는 탓에 벗어나는 생각조차 아니다. 오히려 살고 있는 삶들에게 마음(마음)을 주는 여성이 시다. 마음 같은 마음의 시다. 그녀의 시집을 읽고 싶었는데 그러한 점을 느끼리라. 더구나 몸·마음의 연결점을 통해 그 내면함을 소리없이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참 배 배릴 수 없는, 무물수도 없는 함축... 그러나 친척 당신(혼자 가는 먼집) '처럼 배릴 수 없는 '당신'이 여전히 지금 이 곳에 있기 때문이다.

강영석 (대학원 석사·가·국문학)

우리 몸, 우리 농산물

身土不二

제4회 전국농민현상공모

농협이 전국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논문을 현상공모합니다. 우리의 농업·농촌·농협 발전에 관한 대학(원)생 여러분의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논문공모에 참가하는 대학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논 제: 5제중 택일
가 21 세기를 향한 농업의 발전방향
나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농업의 역할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의 역할
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금융의 발전방향
마 농산물가격 상승과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
2. 용 모 자 격: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3. 용 모 마 기: '92년 9월 5일(당일 소인본도 유효)
4. 용 모 자 기: '92년 10월 10일(당첨자 개별통지 및 농민신문 게재)
5. 시 상: '92년 10월 10일(당첨자 개별통지 및 농민신문 게재)
● 최우수상(1인): 상금 300만원과 상패
● 우수상(2인): 각 상금 100만원과 상패
● 가 격 5인: 각 상금 50만원과 상패
6. 용 모 요 령
가 응모매수: 200 장 원고지 80 매 내외
나 제출 기: 농협중앙회 문화홍보부(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우편번호: 100-707)
7. 기 타
● 논문 제출시 연락처를 명기(제출후명시 1 통 첨부요)
● 응모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자의 저작권은 본회 소유한다.
● 학회장이 인쇄된 원고지는 사용할 수 없음.
● 기타사항은 농협중앙회 문화홍보부 또는 문의바람.
(전화: 737-0021 ~ 9, 교환 7714)

농민의 삶을 소중히 귀두는
농협